“서유기는 단순한 求法 모험기가 아닙니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① 서유기, 이렇게 읽어보세요

손오공과 그의 스승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서유기〉는 동양 고전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가진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영화,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사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양 철학자로 유명한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서유기〉에 담긴 불교 사상을 본지 연재를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삼장법사 · 손오공 · 저팔계 · 사오정의 佛經 찾기 여정은 ‘수박 겉핥기’

여행길 첫 장애인 여섯 도둑은 ‘심원육창’의 불교적 비유 의미해

불교 중심으로 도교적 색채 가미 인간의 수행 과정을 그려내

안녕하세요? 성태용입니다. 오랜 동안 강단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해온 교수라고 소개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는 이야기꾼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얼굴에 금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감칠 맛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 옛날 이야기로 울렸다 웃겼다 하곤 했고, 지금은 강의도 이야기 하듯이 재미있게 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결코 자화자찬만은 아니라고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서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첫 날, 제가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서유기를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지 않게, 정말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서유기 이야기를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유기를 빌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곁들이면서, 또 서유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되새겨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무겁지 않되 서유기의 숨은 의미를 찾아가면서, 또 서유기를 통해 세상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는 서유기만큼 적절한 소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겉만 읽어서는 모르는 깊은 의미가 담긴 책이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구요? 서유기야 뻔한 책 아니냐구요? 삼장법사 모시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인도 가서 불경 구해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다 안다구요?

서유기에 참으로 이해가 깊으신 것 같지만, 바로 그렇게 읽는 것이 서유기를 수박 겉핥기로 읽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너무 쑥스러워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읽고들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의 서유기 이야기가 꼭 필요하고도 빛나게 될 수 있는 이유일겁니다.

서유기가 재미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라 수퍼보드〉(허영만 씨의 만화) 등으로 각색되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재미 속에 불교와 도교의 깊은 가르침을 담은, 한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대로 번역된 서유기를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야, 서유기가 이런 책이었구나”하고 놀란 대목이 있어요. 우선 그걸 소개해 드리기로 하지요.

손오공이 도술을 배워서 천상을 어지럽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내기를 하였는데, 근두운을 타고 열심히 날았는데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곤 오행산 밑에 깔려 고통을 당하다, 삼장법사에게 부름을 받고 불경을 가지러 천축(인도)로 떠나게 되지요. 그 여행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장애가 있어요. 바로 여섯 도둑을 만나는 겁니다. 여섯 도둑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안간희(眼看喜), 이청노(耳聽怒), 비후애(鼻嗅愛), 설상사(舌嘗思), 신본우(身本憂), 의견욕(意見欲). 그럼 쉽게 우리말로 이름의 뜻을 풀어보기로 하죠. 이 도둑들 이름의 첫 글자를 모으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라는 인간이 지닌 여섯 감각기관이 됩니다. 가운데 글자는 그 감각기관의 역할과 활동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마지막 글자는 기뻐하고 성내고 하는 인간의 정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눈은 보고 기뻐한다 △귀는 듣고 성낸다 △코는 냄새맡고 사랑한다 △혀는 맛보고 생각한다 △몸은 본디 근심한다 △뜻은 보고 욕심낸다.

이렇게 여섯 도둑의 이름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이 여섯 도둑이 나오는 대목의 제목을 보고 나면 바로 무릎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고요?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불교적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손오공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로구나! 그리고 손오공이 첫 번째 만나서 물리치는 도둑이 바로 이 여섯이라는 것은 그냥 도둑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섯 감각기관의 유혹을 이겨내며,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로구나!”

이런 감탄을 터트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스님들 법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던가요? 심원육창(心猿六窓) – 마음 원숭이와 여섯 창문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같은 마음이 여섯 감각기관이라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치에 팔려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날뛰는구나. 여섯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치는 바로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니라. 그 도둑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하는 식의 설법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느끼고 나서 서유기를 다시 보면 확 달라집니다. 그 전체가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도교적 색채를 가미한 체계 위에서 인간의 수행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말이지요.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마왕이나 요괴도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들을 극화시킨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구요. 단순히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요괴들과 싸우는 것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서유기를 읽는 재미도 달라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뜨시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그렇다고 딱딱한 강의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유기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깊은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극화시켰다는 데 있는데, 제가 애써서 그것을 재미없고 딱딱하게 만든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저 설렁 설렁, 이리 저리 헤매 가면서 삼장법사 일행과 긴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지요. 서유기를 통해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여러 구석들을 살펴가는 그런 여행이라구나 할까요?

그리고 서유기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보면 또 꽤 기막힌 구석이 꽤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살이에는 삼장법사 일행이 만나는 무서운 요괴보다도 더 기막힌 장애물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구요. 삼장법사 일행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씩씩하게 나가는 서유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험한 장애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가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서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조금의 채찍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유기에 관심을 쏟은 세월이 꽤 되기에, 여러분들과 서유기를 통해 만나는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고,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감회를 담아서 시 한수를 읊어 보기로 하지요.

현장은 서쪽으로 그리 힘들게 갔는데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글자없는 경전의 가르침, 온 누리에 이미 충만한데
번거롭게 오고 감 모두 부질없다.

부질없는 짓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런가?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 무성하다.
내 집 뜰 저 나무도 잣나무 아니런가?
어허,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을시고!

그럴 듯 하죠? 그런데 무슨 의미냐고요? 잣나무 단풍이 곱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요?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첫 이야기에 좀 신비감을 남기려는 시도아니냐고 비난하시진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시에 담으려 했던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지요.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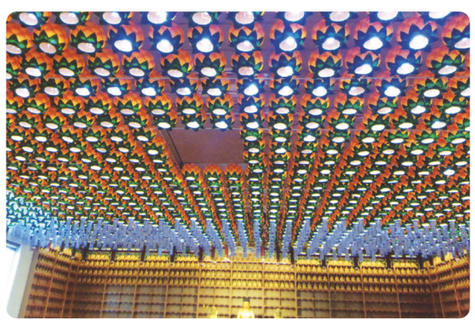


서울대 철학과 박사를 받았으며, 동양 인문학의 메카인 태동고전연구소 1기 출신이다. 건국대 문과대 학장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단장을 역임했다. 재가불교운동에도 힘써 우리는 선우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조계종 화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건국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역과 21세기〉 〈오늘에 풀어보는 동양사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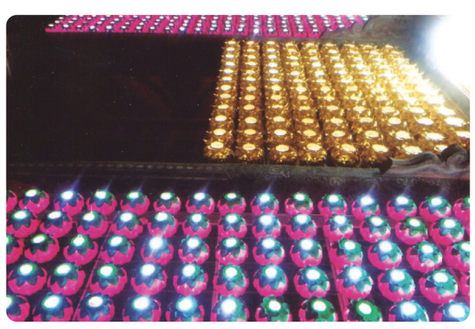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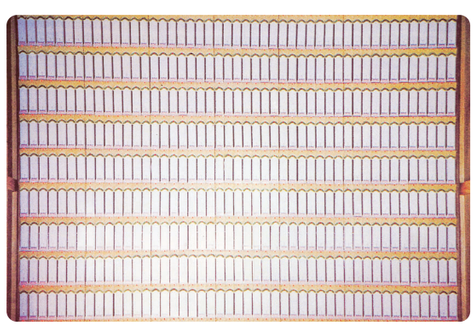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